



## 해외 참여업체 크게 늘어 국제화 세미나만 100회, 전문지식 보고로 부상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는 '2006 에너지전시회'가 해외 업체 및 바이어 유치를 강화해 국제적인 에너지종합 전시회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개최되는 '2006 에너지전시회'는 지난해보다 전시 규모도 440부스에서 600부스로 확대하고 참여 업체 규모도 150개 업체에서 195개 업체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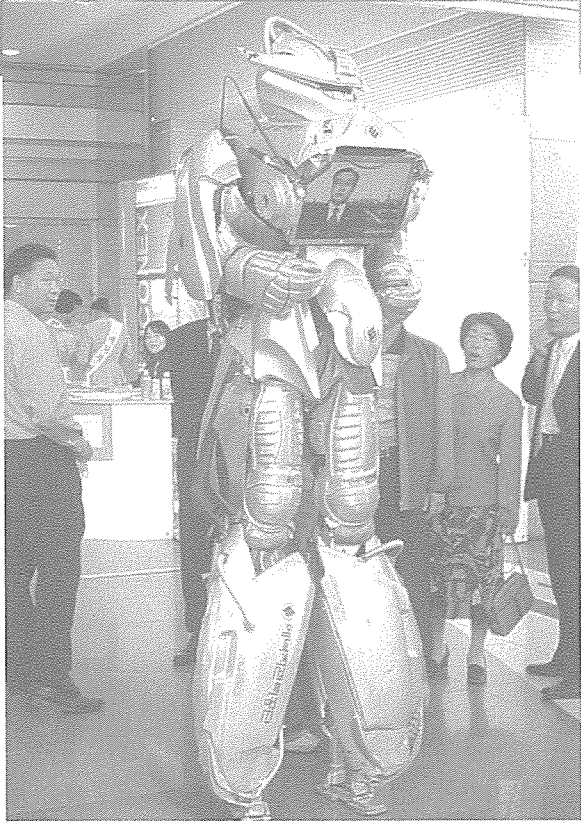
특히 개최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확대 변경해 절약기술과 시책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홍보를 강화했으며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강화를 통해 국제

화된 전시회의 면모를 갖추게 될 계획이다.

올해 전시회에는 독일, 일본, 중국 등 15개국에서 미쓰비시 UFJ & (주)에코시안, 로디아에너지 등 73개 업체가 참여한다.

또 전시관은 기술공공관과 설비부품자재관, 신재생에너지관, 연료 및 사용기기관, 전기사용기기관 등 5개관으로 구성됐으며 전시 기간중 다양한 세미나도 열릴 예정이다.

올해는 전시회규모가 늘어난 것처럼 관련 세미나도 지난해에 비해 약 20% 늘어난 100회 정도가 열릴



예정이다.

눈여겨 볼만한 세미나는 유니스(주)주관의 '750kW 기어리스(Gearless) 풍력발전시스템 및 실증연구현황' 과 그린스톤 주관의 '폐수열회수기와 히트펌프를 이용한 냉온수시스템',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관리실의 '열병합발전 보급활성화방안 설명회' 등이 있다.

이번 전시회를 담당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강진희과장은 "올해 전시회는 지난 전시회에서는 볼수 없었던 기획전시관이 구성돼 있어 관람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정보관에서는 에너지·자원 R&D 기획단 주관으로 '2006년 에너지·자원 신기술 개발 경진대회' 5대 전략분야별 수상작을 전시할 예정이며 수출상담부스에서는 코트라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시장 내에 수출상담장을 설치해 국내 기업의 해외 판촉기회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이 야심차게 선보일 기획전시관은 총 4부스에 4가지 정보관으로 구성된다.

에너지정보관에서는 '2006년 에너지·자원 신기술 개발 경진대회' 5대 전략분야별 수상작을 전시할 예정이며 CDM Market관에서는 국내외 CDM 사업관련 업체의 최신 정보제공을 통한 국내 산업체의 CDM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KOTRA 수출상담부스에서는 수출업체와 해외 바이

어간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특허행정 홍보관에서는 특허심사 5년 이상의 고참심사관등 3인 이상이 상주해 특허출원, 심사, 분쟁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에관공 홍보팀 서백호 부장은 "2006년 전시회가 세계적인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매년 전시규모와 품격을 업그레이드하고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